

아주대학교 병원소식지

1월호
발행인: 李成洛
편집인: 徐廷鎬
편집: 홍보과
전화: 219-2985



아주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은 미래지향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설계 및 건축은 물론 진료방침, 교육여건, 의학연구에 이르는 모든면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은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국민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고통받는 환자의 아픔을 진실로 진무하고 의료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은 따뜻해야 하고 두뇌는 냉철한 이성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의식은 항상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개원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원은 하나의 과정일뿐입니다. 따라서 개원 이후에 후회할 일을 남겨두는 마무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추진본부의 마무리는 또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견고한 모습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아니 있으면 많은 동료가 들어올 것이고 많은 환자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후배들의 긍지를 위해서 또 병원을 찾게 될 모든 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이 맡은 직책이 무엇이건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다시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진본부장 李成洛

갑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친애하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추진본부 가족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새해에 즈음하여 감회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경주하던 시간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새 갑술년 새해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아주대학교병원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만큼 아주대병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해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병원 건축을 일차적으로 마무리짓고 정식 개원을 통해서 국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는 94년도이기에 우리의 각오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는 아주대학교병원과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멋이 깃든 병원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추진 본부의 94년도 신년하례식이 3일 오전9시 의과대학 선인제에서 개최됐다. 李鎬榮병원장, 朴彌煥행정처장등 교직원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번 하례식에서 李成洛추진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과대학과 병원 모두 은은한 멋이 깃든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李 본부장은 그동안 우리 모두는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쏟아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의 문화와 인격이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멋있는 병원일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본부장은 대학도 멋이 있는 대학으로 평가받으려면 대학존립의 본질인 학문연구 성과가 뛰어나야 한다면서 교직원 모두의 분발을 당부했다.

한편 李鎬榮병원장은 4일정도 병원운영2부가 마련한 신년모임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이 환자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베풀고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당위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당위가 하나의 현실로서 우뚝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아껴주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병원장은 또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교직원 모두의 능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들의 혼이 살아있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입학은 바늘구멍

올해 전기대 입시에서 아주대학교 의과

대학의 경쟁률이 초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전기대입시 특차전형에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총 정원의 20%인 6명을 특차전형하면서 응시자격을 수학능력시험성적 상위 1%이내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무려 32명이나 지원을 하여 입시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일반전형 인원 24명에 대한 경쟁은 무려 397명이 지원 1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임으로서 특차전형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야만 입학이 허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번 전기대입시 특차전형에서 응시자격을 수학능력성적 상위 1%이내로 제한한 대학은 포항공대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두 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엘리트 위주의 학교방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아주대의대를 지원한 것은 학교발전을 위해서나 조만간에 개원하게될 부속병원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고있다.

주임교수 내정자 제4차 간담회

아주대학교병원 주임교수 내정자들의 제4차 간담회가 6일 오후5시부터 9시까지 의과대학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상각과의 팀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중점연구분야 및 계획, 추진본부 각부서의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알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만 정말 급하게 추진본부 소식지 1월호를 내놓습니다. 경황이 없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소식지에 게재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기탄없이 정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제는 늘어나고 진행은 더뎠지만...

또 다시 1월이 되니 지난 1년을 생각하게 된다. 욕심이 많아서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인지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 마음, 때로는 자책감이 앞설 뿐이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무엇이든 실속있고 (어떤 것이 실속인지 모르면서) 나에게 있어서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마음이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이러한 노력도 실종되었나 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감각이 무뎠진 탓일까? 자만심이 앞서는 것일까? 그 동안 병원에서 근무는 하였으나 행정경험이 전무하였는데 처음으로 행정업무에 접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체중은 학생때 또는 교수 초년병시절 보다 늘었다.

나름대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였으나 속제는 늘어나고 진행은 더디지 않았나 걱정도 든다. 운영1부의 소속 부서는 임상과, 교육수련부, 건강진단센터, 약제과, 의무기록과, 영양과, 원무과, 보험과 등 각자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업무총괄에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부서 및 타부서의 따뜻한 도움으로 업무수행을 별 탈없이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일 내일 가리지 않고 서로 돕는 분위기도 기존의 병원과는 달리 좋은 점으로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타부서에 협조해주지 못한 일도 많았고 괴로움을 끼쳐드린 일도 많지 않았나 반성해 본다. 그러나 운영1부 소속 교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작으나마 병원개원에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있는 한 해로 기억이 될 것이다.

현재 운영1부는 여섯분의 과장님을 포함해서 15명으로 불었다. 운영1부 코디네이터 전미선교수, 박홍준교수 두분을 합하면 모두 18명의 큰 가족이 된 것이다. 한분 한분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이 앞서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위안으로도 삼는다. 필자는 특별히 IQ가 높지도 않으며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특별히 물려 받은 재능도 없다. 따라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묘책이나 정확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자신은 물론 병원운영1부 전체는 병원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협조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추진본부 전체로 확산되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수 있을 때 환자중심의 더 좋은 병원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믿는다. 새해에는 자신과 병원을 위해서 보다 정직하게 하루 하루를 살고자 한다. 그리하면 100점짜리 한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병원운영1부장 강원형

새로움을 갈구하는 자여 변화를 두려워 말자

우리 아주대학교 병원은 깨끗한 병원, 친절한 병원, 전문적 진료를 통한 환자중심의 병원 건립을 기본 진료철학으로 하여 올 봄이면 외래진료를 시작으로 힘찬 출발을 하게 된다.

지난 9월1일, 운영2부장으로 정식발령을 받고 출근하게 되었을 때 골격만 어수선하게 서있던 병원건물이 어느새 제법 병원의 모양새를 갖추고 내부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을 볼 때 그동안의 어려움은 잠시 잊은채 개원을 위한 준비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운영2부는 인력을 3개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업무를분담, 진행하여 왔다.

1팀은 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여 채용하는 업무와 신규교육 및 직무교육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5차에 걸친 채용고시를 통해 400여명의 우수한 간호사를 확보한 상태에 이르며, 이들을 오리엔테이션시키는데 필요한 실습지침서와 각종 교육자료 그리고 본 병원에 적용할 규정을 준비하기 위해 타 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 작성중에 있다.

2팀에서는 제작이 가능한 의료기구, 진료부서용 비품, 환자용 비품, 침대류 등의 의료비품, 린넨과 복장류, 의료소모품 및 진료재료, 환자 진료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일체, 각 병실 및 특수부서 등에서 사용할 물품등에 대한 품목, 규격, 수량, 사양작업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구매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3팀에서는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응급실

및 병실 SAMPLE 시공 후 시공과 관련된 기능 자문, 기 시공된 부분의 평가 및 수정사항을 검토하는 업무와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간호업무 부문 전산관련 업무지침서 작성, 화면검토 및 수정, 관련 CODE 작성, 전산교육 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각 팀의 업무는 더욱더 바빠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주대학교 병원이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을 포괄한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선 추진본부 전직원이 합심협력하여 동참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대적인 건물과 최첨단의 의료장비, 전산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기대하고 자랑하기에 앞서 우리들 자신의 의식부터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연 우리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변화 그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 보아야 하겠다.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병원을 건립하고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제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그동안 추진했던 계획중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한편 조직사회의 일원으로 조직의 흐름을 알고 협조하면서 자신의 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겠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실은 아주대학교 병원의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리라 믿으며, 그동안 병원운영2부의 업무에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학장님, 병원장님 및 병원건립 추진본부 가족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깊이 감사사를 드린다.

병원운영 2부장 김용순

우리 부서 가훈은 고품질 저가원칙

아주대학에 온지도 벌써 3년이 지났고 또 새해를 맞았다. 그러나 94년 새해와의 만남은 나에게서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해라고 하겠다. 아주대학에서 나는 애인과의 같은 심장내과검사실을 떠나 의료장비기획이라는 생소함과 만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방인처럼 늘 나의 본연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었고 그때를 대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렇다고 현실이 나에게 지워준 책무를 게을리 할 수 없었다. 그 일은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진료, 연구, 그리고 교육을 인생의 전부인줄 알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은 의료장비때문에 역시 좋은 남편과 아빠로서의 위치를 잃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의 교직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짐으로 생각되며 훌륭한 의과대학과 병원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루어야 할 산고라고 생각된다.

의료장비기획부의 책임을 맡았을 때 행정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나로서는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었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 하지만 그동안 기획하고 준비하여 구매의뢰한 중요한 장비들의 구매와 계약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병원의 구석구석에 설치되는 것을 볼 때 그동안 그저 무관심하게 의료장비를 써오던 나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끝없는 서류작업, 사용부서와 꼬리를 문 뱀과 같은 토론, 턱없이 작은 예산과의 전선없는 싸움 끝에 결정되는 장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그동안 노력하신 많은 관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의료장비기획부가 생긴 이래 우리 부서 직원들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힘을 합하여 입시생과 같은 면학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하여 우리 부서의 가훈(?)인 고품질 저가원칙을 달성했을 때라고 하겠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작성한 사양서로 구매에 임하였으나 부족한 예산이나 다른 이유로 유찰되거나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 또 부서간의 책임문제에 연연하여 합리적, 혁신적, 진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점등은 아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새해에는 부서간의 화합과 부서내의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에도 더욱 노력해서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는 분위기에서 최상의 병원을 세운다는 유일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윗분들께는 대학과 병원내에 소외되는 부서와 직원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말은바 소임을 흔들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주님의 은총과 총장님이하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의료장비기획부장 탁승제

지난 86년12월 아주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설립계획안이 처음 수립된 이래 어언 만으로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의과대학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88년3월 첫 번째 신입생을 받았고 올해 1월11일이면 이들 신입생이 졸업생의 입장에서 의사국가시험을 치루게된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건립추진본부가 처음 구성된 것은 88년9월, 89년5월에는 6백병상규모의 병원개설 사전허가를 얻었다. 이후 몇차례에 걸쳐 부속병원건립계획안이 수정되어 91년 10월 공사에 착수한 병원이 만으로 2년 3개월이 지난 93년12월말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있다. 추진본부 또한 시작할 당시에는 소수의 인력에 불과했으나 94년1월1일 현재 본부장, 부분부장, 기획실장, 행정처장을 위시하여 7부 20과 1센터에 1백30여명이 근무하고있다. 이에 그동안의 연혁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추진본부 연혁

- 1986년 12월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계획(안) 최초 수립
 - * 연 면적 : 33,275평
 - * 건물규모 : 총 1,281병상
- 1987년 10월 의과대학 의학과 신설 교육부 인가(30명)
- 1988년 3월 의과대학 의학과 신입생 입학(제1회)
- 1988년 4월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계 착수
- 1988년 9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 부속병원 건립추진본부 구성
- 1989년 5월 병원 사전개설허가(600병상:보건사회부)

- 1990년10월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계획(안) 변경
- 1990년12월 24일 의과대학교 연구동 건축허가 얻음
- 1991년 2월 1일 병상수: 600병상 708병상으로 조정함
- 1991년 7월 16일 부속병원 건축허가 취득
- 1992년 2월 24일 추진본부 운영규정 제정 공포
- 1992년 3월 1일 추진본부 운영규칙 제정 공포
- 1992년 3월 31일 추진본부 조직기구 편성 및 운영위원회 구성
- 1992년 4월 12일 용인회의에서 건립계획안 변경
 - * 연면적 : 30,562평
 - * 병상수 : 770병상



학교병원

- 1992년 5월 22일 제1차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
- 1992년 6월 16일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개정 ('92학년도 추진본부 정원 19명 확정)
- 1992년 7월 24일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1992년 9월 25일 건진센터 운영계획 확정(수진자 50명/일)
- 1992년 11월 5일 아주대학병원 전산 개발 발대식 및 WORKSHOP
 - 전산개발부, 대우정보, 유니시스 등 참가
- 1992년 11월 30일 부속병원과 관련된 정관개정, 인력계획 및 자금확보에 관한 10월 5일 대우학원 이사회의 안이 교육부에서 승인됨.
 -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기구 확정, 총직원 1,110명 승인

- 1993년 1월 14일 제2차 경력직원 모집공고
- 1993년 1월 27일 긴급 건축회의
 - 안건 : 부분개원에 따른 scope확정
 - * 1차 : 4월 - 중앙진료부, 진단방사선과 일부, 임상병리과, 수술실
 - * 2차 : 7월
 - * 3차 : 10월 — 800병상 가동
- 1993년 2월 9일 대한병원협회에 '94년 수련병원 지정 신청
- 1993년 3월 3일 (주)대우 '94. 3. 31까지 95% 건축 마감예정 발표
- 1993년 5월 24일 병원의벽들 하얀색에 고흥석 물갈이로 결정
- 1993년 5월 25일 병원건물 상량식
- 1993년 8월 13일 추진본부 운영규정과 운영규칙 개정
- 1993년 8월 27일 병원명칭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결정
- 1993년 11월 12일 ~ 14일 제1차 추진본부직원 연수교육 실시
- 1993년 11월 18일 5차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공고
- 1994년 1월 3일 추진본부 신년 하례식 및 시무식

병원심벌마크의 설명

- 지팡이+뱀(의료기호)의 단순, 추상적 표현
- 새개의 반원은 병원, 학교, 인간(환자)을 상징한 것으로서 이를 한개의 축(지팡이)으로 결속 유기적 연계와 조화를 통해 일체감을 표현
- 하부에서 상부로의 형태의 확산은 발전하는 병원상을 상징

한마리 뱀과 지팡이는 로마신화의 神 Aesculapius가 지니던 것으로서 Life-Giving Power를 나타냄.

아주대학교병원 년, 내거야!

1994년 1월 1일 현재 추진본부의 인원 130명. 1992년 4월 1일 추진본부가 처음 생겼을 당시 학장님을 포함하여 6명이 의과대학부속병원건립추진본부 위원으로 위촉받아 일을 시작하던 때를 지금과 비교하면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처럼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진다.

사람들이 차츰 늘어날수록 이제는 이름을 외우는 것은 고사하고 얼굴이 생소한 직원도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한사람 한사람 해당 분야에서 그들이 없으면 그일이 안될정도로 일이 세분화되고, 또한 체계가 잡혀가는 것을 볼 때 조직사회에서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느끼게 된다. 초기 1년간은 94년 6월 개원을 한다는 목표만 세워놓았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축현장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때였다. 이에따라 추진본부 각부서 모두가 건축의 조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모든 업무의 방향을 맞추던 때였다. 땀질나게 각병원들을 직접돌아다니며 자문을 구하고 자료도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앞으로 5개월후면 우리의 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작년까지만해도 개원까지 너무 많이 남은것 같아 어떤 병원이 되어도 좋으니 빨리 개원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조바심이 앞섰으나, 막상 개원이 눈앞에 닥치고보니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일의 진행 정도가 직접적으로 개원의 일정과 연결이 되고 조그마한

시행 착오도 병원 운영의 잘잘못과 연관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도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작년 한해는 너무 바빴던것 같다. 직제, 인사, 보수, 예산회계등의 규정작업과 이에 따른 규칙의 제정, 10여차례에 이르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정원 책정, 예산 작업등, 이외에도 꽤나 많은 일을 한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도 시원하게 매듭지어진 것이 없고 한 일도 없는 것 같다. 일년동안 우리 부서 직원들이 타부서에서 눈총도 많이 받았고 서러움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행히 작년 가을부터 기획실장님이 오시고 기획부의 체계가 잡혀나가기 시작하였으며, 금년부터는 홍보과까지 합쳐 현재 10명의 식구가 되었다. 새로 시작하는 우리병원이 몇년내에 의료계에서 부러움을사고 표본이 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겠다.

우리 기획부는 각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일에는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협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짐하고 있다. 다만 추진본부 식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늘어가고 부서가 늘어가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새해에는 다 덮어버리고 진정 한식구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앞으로의 몇달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 우리 모두 답답한 것이 있으면 4층 옥상에 나가 우리 앞에서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병원을 향해 고함 한번 지르자. "년 내병원이야" 라고.

기획부장 소의영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同伴者

새해를 맞이하여 아주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추진본부 소식을 발간하게 됨을 추진본부의 일원으로서 자축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추진본부의 직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지난 2년간 총무부 역시 힘들고도 촌음이 아쉬운 기간이었으며 그 반면에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준 시기이기도 했다. 92년 봄에는 해외차관이나 외화리스를 확보하라는 총장님의 지침을 받고 6개월여를 고생한 것이 기억에 새롭다. 그러나 요즈음 정부규제로 어려웠던 외화자금에 좋은 조건으로 확보되어 전산 기기와 의료장비들이 차질없이 속속 입고 되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힘들었던 만큼 병원 개원이라는 가시적인 큰 결실이 얼마 아니 남았다는 생각에 벽찬 감동과 기쁨이 다가옴을 느낀다. 우리 총무부는 최신 의료시설과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새로운 차원의 의학교육, 연구 및 진료 업무 수행으로 아주대학교내 관련학문 분야와 공조하여 균형있는 학교 발전은 물론 지역민과 교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봉사,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설립취지에 부응하고자 미력하나마 다음일 들을 추진해 왔다.

먼저 부속병원 건물 기공식과 의학관 증축계획에 따른 건축비 문제에서 부터 추진본부기구의 조직 및 운영규정제정, 정관개정을 통한 정원 확보,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의 경제성을 갖춘 적정병상규모 검토, 향후 병원운영전망 분석, 재무계획 수립 및

자금조달, 의료장비 구입,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충원, 병원 개원을 위한 직종별 전문인력 선발 및 관리, 친절한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운영을 위한 전직원의 심폐소생교육 교양교육 연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교육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94년을 맞이하면서 총무부는 위에서 열거한 일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안다. 특히 본부장님의 철학인 친절한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이 이상에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인식되어져야 하며 또한 인식되고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종합병원에 늘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불친절, 3분진료 받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비 합리성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태어나도록 이제 우리는 몇개월 내에 해내야만 하는 힘든 산파역을 마다하지 말아야겠다.

또한 개인과 직종별 소집단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각 직종간, 각부서간은 물론 아주대학과 대우그룹과는 동반자로서 서로 협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구고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마음의 각오로 94년을 맞이해야겠다. 끝으로 지난 두해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본부장님 이하 추진본부 여러분, 그리고 학교본부와 법인의 관련 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총무부장 최 영

미래형 병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본부는 병원건립 추진본부 행정처 산하의 기구로 아주대학교 병원 건설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건축공사 관리업무, 전기설비, 냉난방의 열관리 설비, 급배수 설비, 의료가스 공급 설비 등의 건축설비 등의 관련업무 그리고 의료장비와 관계되는 제반의 설비 관리업무 등이 주요업무이다.

1993년말 병원건축공사의 기성고율이 약 78%정도 진척된 것으로 예측한다. 1992년말 기준의 기성고율이 17%정도이었으니 1993년 한 해 동안 실질 기성고는 60%의 진도를 보였으며 이는 예년에 비하여 획기적인 성과라 하겠다.

이러한 성과는 재단과 총장님, 추진본부장을 위시한 추진본부 전 직원과 공사를 시공하는 (주) 대우 그리고 서울건축등 공사에 관계한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또 하나 1993년도에 높은 기성고의 진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1992년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한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바탕위에서 1993년도가 무난하게 공사 진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하며 1992년도를 이끌어 주신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1993년은 공사 기성율이 높았던 만큼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높은 기성율을 보여 1994년도 진료개시 및 개원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게 된 것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1993년을 보내면서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아주대학교 병원 설립을 위하여 오랫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 측의 의견 수렴기회가 부족했던 점과 진료개시 및 개원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학사일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1994년 6월 1일 진료개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병원설립의 과제인 환자중심의 병원, 미래지향적인 병원 그리고 현대 시설을 갖춘 모범적인 병원을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994년을 맞이 하면서 진료개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 반입된 의료장비와 관계되는 상당 부분의 마감을 유보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개시 이후에도 마감미 유보된 부분과 장차 반입될 의료장비에 대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부분의 시공대책 그리고 병원 개원 이후 사용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현재 진행중인 공사부분에 적절히 반영토록 하는 것이 건축기획본부의 1994년 당면과제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료개시 일정의 전단계로 1994년 3월중에 관계 허가기관의 사용허가(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한 잔여공사를 계획 공정에 차질 없이 시공하여 사용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주식회사 대우)을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하는 것도 건축기획본부가 해야할 일이며 병원의 개원 행사준비와 병원이 100% 정상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병원 건설에 관한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

끝으로 1994년 새해를 맞아 병원건립 추진본부 전 직원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 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건축기획본부장 최태성

ATOM을 옥동자로 탄생시키는 비결은...

가까운 미래에 아주대학교 병원정보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평가되었을 때 1993년은 시스템을 잉태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어려움도 많았고 갈등도 흔히 있는 일 이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없는 현실에서 운영방법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아야 했고, 사용자 요구가 분명하지 않은 채 일정상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어서 후에 임명된 사용자와의 갈등을 극복해야 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요청에 대해 본부장님과 총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른 시일 안에 충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1993년에 전산개발부는 아주대학교 병원정보시스템 일명 ATOM(Ajou Total Medical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적인 작업을 대부분 수행하였다. 수백개의 화면을 설계하였고 수천개의 항목을 갖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으며 약 900본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적용하는 완벽한 분산처리 방식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수많은 기술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었고 2차례에 걸쳐 외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맡은 (주)대우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공급을 담당한 (주)유니시스와 용역을 의뢰한 추진본부의 전산개발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협조하는 조직체계를 갖고 일을 한 것은 이 시

스템이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렇다고 우리 시스템이 안고 있는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앞서가는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병원 특성에 맞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것을 발견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개원과 동시에 컴퓨터시스템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 요구를 받은 시기와 개발시기가 적절하게 조화되지 못해 사용자 요구가 충분히 시스템에 반영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원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스템 개발시 업무에 대한 많은 분석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기적으로 늦어 개원시 시스템에는 반영하지 못한 사용자 요구도 올해 말까지는 가능한 한 수용하도록 할 것이다.

개원을 하게되는 1994년은 전산개발부의 운명이 걸린 한 해가 될 것이다. 전산개발부는 타부서와 달리 개원과 동시에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동자를 분만할 것이냐? 사산아가 나올 것이냐? 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망서리지 않는다.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제거하여 오직 성공만이, 오로지 전진만이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 자식이고 피붙이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할 따름이다.

전산개발부장 전 기 흥

병원장 칼럼

"인간의 정성이 담겨 참된 치유가 역사하는 최초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이상의 혼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서울을 강남, 강북, 강동, 강서 등 네 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발상은 정치적인 의도에서만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및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이다. 서울이 계속 생활권으로 구역화 되지 않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출퇴근하는 오늘의 실상이 계속될 때 서울은 숨쉬기조차 어려워질 정도의 생지옥이 되고 말 것이다.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한강 다리 하나가 무너진다든지, 지하철이 고장난다든지 하는 어떤 파국적인 사고가 생기면서 시민들이 그때서야 서울이 살 곳이 못된다고 이탈하려는 추세가 몇 년 안에 올 것이 뻔하다.

서울을 빠져 나간다면 어디에서 좀더 넓고 편한 공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한편 서울이 갖는 문화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서울 근교 어디가 과연 필요에 따라 쉽게 서울에 드나들 수 있으면서 교육 수준도 높아서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도 흡족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있어 급하면 즉시 달려가 질 높은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곳에 살아도 현재 치열한 국내 및 국제 경쟁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정보취득이나 통신시설은 구비되어 있을까?

탈 서울의 추세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문화의 수준을 고려할 때 서울 시민들이 먼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수원, 용인, 분당 지구임에는 틀림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병원이 갖는 지정학적 전망은 밝고 확고 하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엄청난 과제와 책임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첫 번째로 아주대학교병원의 모든 기술, 인력,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이 국내에서 첨단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계의 국제화를 이루는 첨단기지가 되어야 한다. 새로 짓는 병원이 새로운 포부를 갖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아주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미래에 도약하는 창의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 병원은 기술 이상의 혼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첨단기술이 있고 개념의 권위가 있으며 사람들이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거기에 인간의 정성이 담겨 참된 치유가 역사하는 최초의 병원이 된다는 긍지를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

李 鎬 榮